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7월  
8일 0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  
었다.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성원  
들과 당중앙지도  
기관 성원들이 참가  
하였다.

위대한 조선  
로동당, 강대한 우리  
국가의 창건자,  
건설자이시고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진정되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  
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신 총비서동지께서  
는 심오한 사상리론  
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 삼가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리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본사기자

### 김일성동지는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할 것이다

여러 나라 인사들 열렬히 칭송

《김일성동지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탁월한 혁명의 지도자이시며 사회주의리념을 견결히 고수하신 진정한 인민의 수령이시다. 그의 업적은 20세기 력사의 페이지들에 금문자로 영원히 아로새겨져있을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서거 27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소장인 보내어은 전문의 한 대목이다. 한평생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혁명과 세계 자주화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심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강렬해지고있다.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라고 하면서 배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이는 억압받고 착취받던 인민대중의 앞길을 밝히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

하시고 제국주의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신 20세기의 정치원로, 걸출한 군사전략가이시다. 김일성주석께서 쌓아올리신 업적은 오늘도 조선인민과 인류의 마음속에 소중한 간직되어있으며 세계에 빛을 뿌리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 야협회 위원장은 그리움의 7월을 맞는 진보적인류는 조선인민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르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일성동지는 인민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며 자유와 독립, 행복에로의 길을 밝혀주는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위업은 새 세대들의 위대한 귀감으로 빛나고있으며 태양의 존함은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할것이다.

별가리아 쾨피야에 있는 김일성도서관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해방과 공화국의 창건, 사회주의건설에 헌성을 다 바치시여 조선의 력사만이 아닌 전세계 진보적인류의 력사에 깊고도 빛나는 자욱을 남기시었다.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거룩한 업적은 세기를 이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은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변함없는 지도사상으로 빛나고있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각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반드시 완수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온 나라 인민의 다함없는 경모와 그리움의 마음은 대화가 되어 흘렀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27년. 그 나날은 절세위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27년이었다. 한해두해 세월은 가고 산천은 변한다 해도 어찌 자애로운 그 영상을 잊을 수 있랴. 세월이 갈수록 인민의 마음속에 더욱 갈마드는 그리움, 그리움.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못 잊는 인민의 절절한 마음은 만수대언덕에도 그리움의 물결을 펼치었다. 손에 손마다 꽃다발과 꽃송이를 들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계단을 오르는 각계층 군중들. 한계단 또 한계단 오를수록 수령님 음성이 더 가까이 들려오고 어서 오라 손저어 부르시는것 같아 격정에 가슴설레이는 인민들이다.

### 그리움의 대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언제나 제일 사랑하신 인민, 인민이 높이 모시고 언제나 변심없이 따른 절세의 위인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늘도 인민들과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신다. 인민은 절세의 위인들께 자기들의 복된 삶을, 존엄과 행복의 오늘을 삼가 아뢰인다. 인민의 경모의 마음과 그리움이 담긴 꽃바구니, 꽃다발들, 꽃송이들로 만수대언덕은 아름다운 꽃물결을 펼치었다. 어찌 평양의 만수대언덕에서만 이랴. 수도와 지방 그 어디라 할것없이 인민이 사는 모든 곳에서 각계층의

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경모의 인사를 삼가 드리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들의 사랑을 그대로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받들어 부강조국건설에 예국의 땀방울들을 더욱 바쳐갈 굳은 결의들을 다지었다. 7월 8일, 인민은 어디서나 그리움으로 잠 못 이루었다. 본사기자 한일혁



# 이민위천으로 빛나는 거룩한 한평생

그리움의 7월이다. 해마다 맞고 보내는 달이건만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성대하게 진행된 뜻깊은 올해에 맞이한 7월은 공화국 인민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그리움의 정을 더해주고 있다.

한평생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지니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장정을 이어 오신 아버지수령님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그 어떤 요란한 구호를 내든 그것보다도 우리 당의 숭고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이 3가지 리념을 다시 깊이 새기는것으로써 당 제8차대회의 구호를 대신하자라는것을 제기하시었다. 이민위천.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한평생 좌우명으로 간직해오신 불멸의 신조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자신께서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겨왔고 인민을 하늘처럼 섬겨오고 있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하느님은 다른이인 인민이라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이민위천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있다고 하시었다.

만경대의 추녀났은 조가집에서 인민의 아들로 탄생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몸 서슴없이 바칠 숭고한 뜻과 비상한 의지를 지니시고 10대의 어린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었고 압록강을 건너시며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으며 땅에 인민이 잘사는 나라를 기어올려야 할 줄을 꿰뚫어 보았을 때부터 평생을 다지시었다.

위대한 주석께서는 수십 성장 나라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력사의 초행길을 씩임없이 이어가시었다. 이 길은 누구나 다 걸을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그 길에는 그이께서 언제나 하늘처럼 내세우고 받들어온 귀중한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은 인민이었다.

돌이켜보면 리론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민을 떠나 탐상공문과 갑문을박속에 독립을 모색한다고 하면서 저저마다 령도권을

다투고있을 때 아버지수령님께서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었고 인민의 힘을 믿고 민족자주위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었다.

그 길은 진정 인류역사가 알지 못하는 인간의 자주적생명체적의 참다운 길이었다.

인민의 부름 앞에 모진 시련도, 상상할수 없는 고난도 이겨내야만 하시였던 수령님이시었다.

나라를 찾기 위한 피어린 길에서 아버님과 동생, 삼촌을 잃으시고 회생전 전우들을 인양에 묻는 모진 피로속에서도, 실한 품 힘쓰는 한 지에서도, 적의 포위속에 든채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에도 수령님께서 잊지 못하신것은 운명의 구원자를 에라게 기다리며 몸부림치는 순간만은 우리 겨레였다.

그 인민과 수령님은 땀과 땀수 없는 한몸이었고 인민은 그의 생의 전부였다.

하기에 피어린 항일혁명의 불바다속에 대원들과 함께 《사항기》를 부르시며 해방전 조국을 그리보시고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을 한몸에 안으시고 좋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래일의 꿈을 키워 주시던 수령님이시었다.

인민이 주된 새 정권의 원형도, 세상이 없고 누구나 무상치로, 무료교육을 받는 고마운 인민적시책의 원형도 그이께서 피어린 항일전구에서 마련하신것이였다.

총포성이 울부짖는 백두전



검덕광산을 현지도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주제 50(1961)년 4월

에서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자체의 힘이 강해야 나라를 찾을수 있고 인민의 행복도 담보할수 있다는 철칙같은 신념과 의지를 굳히신 수령님이시었다. 해방전 조국땅에 개선하시여도 고향집을 지척에 두신채 조선의 국력강화를 위해 강산을 먼저 찾으신다.

건국의 나날 일부 사람들이 저마끔 남을 쳐다보며 주의주장을 내세울 때 수령님께서는 새 민주조선건설의 길을 인민의 지향에 맞게 자주적으로, 독창적으로 개척하시었다.

천경만경의 시련을 헤쳐야 했던 나날에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빛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고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도 빛나는 승리가 비롯되였다.

전후에는 벽돌 한장 성한 것이 없었던 폐허에서 복구건설의 기적을 창조하시고 다른 나라에서는 100년이상이나 걸렸다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제도 단 14년 동안에 달성하시어 이 땅을 인민의 나라로 바꾸어 주시었다.

현지도도길에서 수령님 하신 교시는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나는 위대한 스승이며 어머니인 인민의 성실한 아들이 되기 위하여 한평생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시었다.

광활한 미래는 위대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스승인 인민들속에 들어가 부지런히 배우면서 쉬지 않고 일한다면 우리는 남만여 광활한 미래를 앞장겨 줄수 있을것이다. ...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인민이 좋아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

다시며 80고령에도 굳은길 마른길 가림없이 현지도도의 길을 이어가시었다.

제철소에 가시면 용해공들과 함께 철생산방법을 토의하시고 농촌에 가시면 손수 논밭을 돌리시며 가늘고박고 농사짓는 방법을 의논해 주시던 수령님의 한평생은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쳐진 위대한 아버지의 한평생이였다.

하기에 그의 한평생을 추억 하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시

었으며 수령님의 혁명활동은 언제나 인민대중을 터전으로 하여 진행되고 그 전 과정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바쳐졌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인 주제83(1994)년 7월에 수령님께서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기 위한 경제부문 책임일군회의 회를 지도하시느라 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두통한 문건을 끝까지 다보이시고 비준하시었다.

이대로만 하면 잘될것 같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그 영상은 오늘도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울수 없는 모습으로 간직되어 있다.

은 겨레가 함께 모여 만복을 누리는 통일되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것은 수령님의 한생의 뜻과 모습이었으며 그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수령님께서 영원히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었다.

《조선의 김일성주석이 서거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주석에 대한 인민들의 숭배는 더욱 강해졌다. 그래서 김일성주석은 오늘도 영생하고계신다.》라고 격찬해마지 않았다.

은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무궁토록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해 오늘도 빛나게 계승되고 구현되고 있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럽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라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라고 하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위민헌신의 령정을 쉬임없이 이어가고계신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도 친히 서명하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람의 특별명령서를 발령하시고 육아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도 중요의제로 토의하시었다.

인민이 있는 곳이라면 태풍이 불어도 위험한 철다리가 가로막아도 그 어디건 찾아가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그이시이다.

펼치는 정치도 인민을 위한 정치이고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어느것이나 인민과 잇닿아있는 가슴뜨거운 말씀들이다.

인민을 위한 헌신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을 위해 자신의 한몸을 초물처럼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그의 모습에서 온 나라 인민은 한결같이 느끼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들의 기쁨을 자신의 한생의 락으로 안고 자신 김일성주석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것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이어가시는 자애로운 인민의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셔 숭고한 인민사랑의 력사는 오늘도 레일도 계속 줄기차게 흐르며 이 강산에는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욱 높아갈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세계에는 수많은 해외교포조직이 있으며 각기 자기 성원들의 민족적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고 투쟁하는 애국적인 해외교포조직은 이 세상에 오직 총련뿐이다.

총련이 조직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비합 없이 애국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던 것은 절세위인들의 다심한 보살핌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제75(1986)년 9월 15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총련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무렵 총련의 사업환경은 많이 달라졌다.

당시 일본에서는 반동화경향이 더욱 짙어가고 이 역류를 타고 일본정부는 군국화와 파쇼화의 길로 돌달음치면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분열과해책등을 강화하고있었다.

바로 이 변화된 현실, 준엄한 환경을 총련과 재일동포들속에서는 총련의 전도 제일 총련의 성격과 관련된 반신반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었다.

언제나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으로 가슴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절박한 현실의 물음에 대답을 주시려고 이처럼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몸소 일군들을 불러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사업

에서 나타나고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먼저 료해하시고 나서 낮으나 힘있는 어조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재일조선인 운동에 빛나게 구현하시었다고 하시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수령님께서 사대주의, 교조주의자들, 민족배타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재일조선인운동이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놓여있던 엄혹한 시련의 시기까지 언제나 비합 없이 애국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던 것은 절세위인들의 다심한 보살핌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제75(1986)년 9월 15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총련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무렵 총련의 사업환경은 많이 달라졌다.

당시 일본에서는 반동화경향이 더욱 짙어가고 이 역류를 타고 일본정부는 군국화와 파쇼화의 길로 돌달음치면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분열과해책등을 강화하고있었다.

바로 이 변화된 현실, 준엄한 환경을 총련과 재일동포들속에서는 총련의 전도 제일 총련의 성격과 관련된 반신반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었다.

언제나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으로 가슴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절박한 현실의 물음에 대답을 주시려고 이처럼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몸소 일군들을 불러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사업

주제54(1965)년 4월 어느 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룡라도에 나가시어 손수 나무를 심으시었다.

일군들에게 나무심는 방법이며 나무의 특성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면서 그이께서 품을 들여 내뵈게 나무를 심으시였을 때였다.

한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께 작업을 그만 하실것을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나 올 때 다섯그루를 심기로 계획했다고 하시면서 어서 더 심자고 하시는 것이였다.

이윽고 아버지수령님께서 손수 하고 하시게 되니 심고 계시는 생각이

머리를 퍼시였는데 실 참에는 또 룡라도유원지건설계획도 보여주시었다. 그러시면서 룡라도에 제방을 쌓고 섬을 더욱 운치있게 꾸미게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이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이 여러번 만류했지만 일군들이 나무를 심으시고야 일손을 놓으시었다. 귀로에 오르신것 그이께서는 오늘 좋은 나무를 심었다고, 오늘 아침 나 올 때 다섯그루를 심기로 계획했다고 하시면서 어서 더 심자고 하시는 것이였다.

이윽고 아버지수령님께서 손수 하고 하시게 되니 심고 계시는 생각이

수십년 전 4월 어느 날 다음날 아침일찍 승용차를 타고 현지도도의 길을 떠나시었다.

승용차가 멎어진 곳은 어느 한 농촌마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장길을 걸으시며 일군들에게 농장이 나아갈 앞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농민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남새와 축산을 발전시키고 가꾸어달라고 하시었다. 그리고 주택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또다시 어느 한 단위로 현지도도의 길을 떠나시었다.

수십년 전 4월 어느 날 다음날 아침일찍 승용차를 타고 현지도도의 길을 떠나시었다.

승용차가 멎어진 곳은 어느 한 농촌마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장길을 걸으시며 일군들에게 농장이 나아갈 앞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농민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남새와 축산을 발전시키고 가꾸어달라고 하시었다. 그리고 주택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또다시 어느 한 단위로 현지도도의 길을 떠나시었다.

뜻깊은 봄날에

수십년 전 4월 어느 날 다음날 아침일찍 승용차를 타고 현지도도의 길을 떠나시었다.

승용차가 멎어진 곳은 어느 한 농촌마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장길을 걸으시며 일군들에게 농장이 나아갈 앞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농민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남새와 축산을 발전시키고 가꾸어달라고 하시었다. 그리고 주택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또다시 어느 한 단위로 현지도도의 길을 떠나시었다.

주제83(1994)년 7월 7일이였다.

오전에 조국통일문건을 검토하시고 력사적인 친필을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밤에는 또 밤대로 휴식도 없이 사업을 계속하시느라 때늦은 식사마저 들지 못하시었다.

한 일군이 그이를 우리르며 식사를 좀 드실것을 간절히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어떤지 밥 생각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 일을 더 하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리고는 정력적으로 사업하시었다.

《식사도 드시지 못하고 어떻게 집무를 보시겠습니까?》

일군이 그이께 다시금

말씀드렸을 때였다. 수령님께서는 고맙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우리가 인민들을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김정일동지가 인민을 위하여 밤새워 일하는걸 보면 잠도 헐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밤은 깊어만 가는데 80고령의 수령님의 사업은 계속되고있었다. 문건을 보시고 전화를 하시고 또 문건을 보시고...

우리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해주시려고 한평생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그토록 마음쓰신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하루는 이렇게 흘러갔다.

본사기자

## 인민을 위해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 천리마대교조의 기념식수

수십년 전 4월 어느 날 다음날 아침일찍 승용차를 타고 현지도도의 길을 떠나시었다.

승용차가 멎어진 곳은 어느 한 농촌마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장길을 걸으시며 일군들에게 농장이 나아갈 앞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농민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남새와 축산을 발전시키고 가꾸어달라고 하시었다. 그리고 주택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또다시 어느 한 단위로 현지도도의 길을 떠나시었다.

뜻깊은 봄날에

수십년 전 4월 어느 날 다음날 아침일찍 승용차를 타고 현지도도의 길을 떠나시었다.

승용차가 멎어진 곳은 어느 한 농촌마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장길을 걸으시며 일군들에게 농장이 나아갈 앞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농민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남새와 축산을 발전시키고 가꾸어달라고 하시었다. 그리고 주택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또다시 어느 한 단위로 현지도도의 길을 떠나시었다.

주제83(1994)년 7월 7일이였다.

오전에 조국통일문건을 검토하시고 력사적인 친필을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밤에는 또 밤대로 휴식도 없이 사업을 계속하시느라 때늦은 식사마저 들지 못하시었다.

한 일군이 그이를 우리르며 식사를 좀 드실것을 간절히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어떤지 밥 생각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 일을 더 하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리고는 정력적으로 사업하시었다.

《식사도 드시지 못하고 어떻게 집무를 보시겠습니까?》

일군이 그이께 다시금

말씀드렸을 때였다. 수령님께서는 고맙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우리가 인민들을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김정일동지가 인민을 위하여 밤새워 일하는걸 보면 잠도 헐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밤은 깊어만 가는데 80고령의 수령님의 사업은 계속되고있었다. 문건을 보시고 전화를 하시고 또 문건을 보시고...

우리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해주시려고 한평생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그토록 마음쓰신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하루는 이렇게 흘러갔다.

본사기자

## 인민을 위해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수십년 전 4월 어느 날 다음날 아침일찍 승용차를 타고 현지도도의 길을 떠나시었다.

승용차가 멎어진 곳은 어느 한 농촌마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장길을 걸으시며 일군들에게 농장이 나아갈 앞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농민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남새와 축산을 발전시키고 가꾸어달라고 하시었다. 그리고 주택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또다시 어느 한 단위로 현지도도의 길을 떠나시었다.

뜻깊은 봄날에

수십년 전 4월 어느 날 다음날 아침일찍 승용차를 타고 현지도도의 길을 떠나시었다.

승용차가 멎어진 곳은 어느 한 농촌마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장길을 걸으시며 일군들에게 농장이 나아갈 앞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농민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남새와 축산을 발전시키고 가꾸어달라고 하시었다. 그리고 주택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또다시 어느 한 단위로 현지도도의 길을 떠나시었다.

주제83(1994)년 7월 7일이였다.

오전에 조국통일문건을 검토하시고 력사적인 친필을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밤에는 또 밤대로 휴식도 없이 사업을 계속하시느라 때늦은 식사마저 들지 못하시었다.

한 일군이 그이를 우리르며 식사를 좀 드실것을 간절히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어떤지 밥 생각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 일을 더 하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리고는 정력적으로 사업하시었다.

《식사도 드시지 못하고 어떻게 집무를 보시겠습니까?》

일군이 그이께 다시금

말씀드렸을 때였다. 수령님께서는 고맙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우리가 인민들을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김정일동지가 인민을 위하여 밤새워 일하는걸 보면 잠도 헐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밤은 깊어만 가는데 80고령의 수령님의 사업은 계속되고있었다. 문건을 보시고 전화를 하시고 또 문건을 보시고...

우리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해주시려고 한평생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그토록 마음쓰신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하루는 이렇게 흘러갔다.

본사기자

말씀드렸을 때였다. 수령님께서는 고맙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우리가 인민들을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김정일동지가 인민을 위하여 밤새워 일하는걸 보면 잠도 헐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밤은 깊어만 가는데 80고령의 수령님의 사업은 계속되고있었다. 문건을 보시고 전화를 하시고 또 문건을 보시고...

우리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해주시려고 한평생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그토록 마음쓰신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하루는 이렇게 흘러갔다.

본사기자

## 복종의 복

수십년 전 4월 어느 날 다음날 아침일찍 승용차를 타고 현지도도의 길을 떠나시었다.

승용차가 멎어진 곳은 어느 한 농촌마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장길을 걸으시며 일군들에게 농장이 나아갈 앞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농민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남새와 축산을 발전시키고 가꾸어달라고 하시었다. 그리고 주택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또다시 어느 한 단위로 현지도도의 길을 떠나시었다.

뜻깊은 봄날에

수십년 전 4월 어느 날 다음날 아침일찍 승용차를 타고 현지도도의 길을 떠나시었다.

승용차가 멎어진 곳은 어느 한 농촌마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장길을 걸으시며 일군들에게 농장이 나아갈 앞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농민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남새와 축산을 발전시키고 가꾸어달라고 하시었다. 그리고 주택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또다시 어느 한 단위로 현지도도의 길을 떠나시었다.

주제83(1994)년 7월 7일이였다.

오전에 조국통일문건을 검토하시고 력사적인 친필을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밤에는 또 밤대로 휴식도 없이 사업을 계속하시느라 때늦은 식사마저 들지 못하시었다.

한 일군이 그이를 우리르며 식사를 좀 드실것을 간절히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어떤지 밥 생각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 일을 더 하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리고는 정력적으로 사업하시었다.

《식사도 드시지 못하고 어떻게 집무를 보시겠습니까?》

일군이 그이께 다시금

말씀드렸을 때였다. 수령님께서는 고맙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우리가 인민들을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김정일동지가 인민을 위하여 밤새워 일하는걸 보면 잠도 헐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밤은 깊어만 가는데 80고령의 수령님의 사업은 계속되고있었다. 문건을 보시고 전화를 하시고 또 문건을 보시고...

우리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해주시려고 한평생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그토록 마음쓰신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하루는 이렇게 흘러갔다.

본사기자

말씀드렸을 때였다. 수령님께서는 고맙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우리가 인민들을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김정일동지가 인민을 위하여 밤새워 일하는걸 보면 잠도 헐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밤은 깊어만 가는데 80고령의 수령님의 사업은 계속되고있었다. 문건을 보시고 전화를 하시고 또 문건을 보시고...

우리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해주시려고 한평생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그토록 마음쓰신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하루는 이렇게 흘러갔다.

본사기자



# 통일애국의 길에 빛나는 거룩한 그 업적

7월. 온 겨레가 민족의 자애로운 어머니인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슴을 끓이고 눈물을 뜨겁게 적시는 7월이다.

이 땅의 산천초목도 끝없는 비눈에 몸부림치던 그날로부터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27년이라는 긴 시간의 세월을 새겨왔다.

하루하루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햇빛같은 미소를 지니고 우리 겨레를 사랑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던 어머니수령님의 태양의 존안은 오늘도 겨레의 가슴마다 깊이깊이 새겨져있다.

민족의 어머니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며 지금 온 겨레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민족의 단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강고히 다 바치신 어머니수령님의 애국애족의 한평생에 대해 다시금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 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 인사들과 외국인들을 만나 주시고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강요하신 회수는 정말 헤아릴수 없이 많았고, 항일혁명투쟁시기를 내놓으면 우리 수령님의 한생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한생이었다고 할수 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나라가 분열된 때로부터 반세기이 지난 기간 어느 하루도 민족이 겪고있는 불행과 재난에 대해 잊지 못하고 그리고도 가슴아파하시던 어머니수령님.

하루빨리 통일된 조국을 우리 겨레에게 안겨주시어 어머니수령님께서 바치신 로고의 낮과 밤은 그 얼마이며 그 무수한 날에 새겨진 감동깊은 이야기들은 또 얼마나 많은것인가.

수십년전 역사적인 조선 노동당 제2차 대표자회에서 하실 보고를 집필하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의 방을 뚫고 나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일군에게 아직 조국개선의 인사도 남뉘는것들에게 하지 못했다고, 조국통일의 인사를 겸해서 해야겠는데 분열의 역사만이 깊어가고있다고 하시며 못내 가슴아파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분열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줄수 없다고, 우리모두 일을 잘하여 빨리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었다.

주체63(1974)년의 어느 여름날에는 이런 사연도 새겨져있다.

그날 전화로 한 일군을 찾으신 어머니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우리 손으로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통일만 되면 자신께서는 10년은 더 젊어질것 같다고 절절한 음성이었고 할수 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또 언제인가는 남조선의

한 목사를 만나주신 자리에서 자신께서는 조국을 통일하는 일이라면 그에 무조건 복종하겠다는 뜻깊은 교시도 하시었던 우리 수령님이다.

조국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바쳐가신 어머니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헌신이 있어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반동 일책등을 물리치며 힘찬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다.

역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와 더불어 마련된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의 귀중한 전통도 어머니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적의지와 넓은 도량이 아닌은 고귀한 열매였고 분열주의자들의 《두개 조진》조작책동이 물거품으로 되고 북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문이 열리게 되었던것도 수령님의 철석같은 통일의지의 결정체였으며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범위로 확대되고 북과 남, 해외의 련대연합이 적극 실현될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투철한 애국적의 사상과 령도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비롯하여 어머니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획기적인 조국통일방안들과 그이께서 만나주신 통일이국의 길로 이끌어주신 동포들은 그 수를 헤아릴수 없다.

오늘도 우리 겨레는 80여명의 어머니수령님께서 통일위업의 실현을 위해 정력적으로 이어나가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 나날 한 재미교포녀류가 자를 만나주신 자리에서 하시던 어머니수령님의 교시는 얼마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는가.

그날 어머니수령님께서는 한때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 용납하시겠다는 고고 허물없이 말씀드리는 재미교포녀류자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다고, 자신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서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도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여야 한다고 하였고도 교시하시었다.

이렇듯 고령의 불완한 몸이심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부강조국건설과 조국의 통일을 위해 불같은 열정을 쏟으신 어머니수령님께서는 통일위업의 실현을 위해 정력적으로 이어나가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을 잊지 못하고

민족의 성인을 찾을수 없다. 저 하늘의 태양이 영원하듯이 주석님은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영원한 태양이다. 《우리 남녘민중에게 있어서 김일성주석님은 힘과 용기의 원천이었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시었다.》, 《인류역사에 민족을 위해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다가 순직하신 그런 성인, 그런 위인이 또 어디에 있었는가. 겨레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조국통일을 위해 주석님께서 쌓으신 업적은 민족의 역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져 영원히 빛날것이다.》라고 격동된 자기들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것은 남녘의 겨레들만이 아닌 북과 남, 해외에 사는 온 겨레의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이다.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어머니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겨레에게 남긴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든든한 밑천이다.

오늘 우리 겨레의 성스러운 조국통일운동의 진두에는 민족의 영웅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심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이 되며 어머니수령님의 불멸의 통일업적은 절세위인의 필생의 뜻과 념원을 그대로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시)

## 빛나라 통일친필비어

유현의

불수룩 그리움 더해주는 글밭  
뜨거움에 젖어드는 마음안고  
판문점 통일친필비어에 서니  
아. 어러오누나 아홉 글자 그 친필에  
우리 수령님 통일위한 한평생이

《김 일 성  
1994. 7. 7.》

세월은 많이드 흘러왔어도  
7월 7일 그날은  
겨레의 가슴에 뜻깊게 남아있고  
활달하신 필체는 비둘기에만 아닌  
겨레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있거니

지새우신 밤은 또 그 얼마였던가  
통일의 앞길 밝혀 붓을 드시고  
씨가시던 대강은 또 얼마였던가  
통일위해 바쳐오신 그 헌신과 로고  
하늘이 넓어 저 하늘에 비기며  
바다가 깊어 저 바다에 비기라

생애의 마지막날에도  
밝아올 통일의 려명 그려  
환하게 웃으시며 친필을 새겨가시던  
민족의 어머니의 그 영상  
그날의 그 미소는 오늘도  
겨레가 못 잊는 태양의 미소

그 누가 세월과 더불어  
그리움도 진다고 했더냐  
천년바위를 모래로 만든다는  
무정한 세월이 흐르고흐르는데도  
수령님을 그리는 겨레의 마음은  
세월따라 더욱 간절해지거니

비어에 서니 들려오누나  
통일만 되면 10년은 젊어질것 같다고  
절절히 하시던 수령님 음성  
분별의 어둠가시려  
한몸을 태워 기울이신 그 심혈  
글밭마다에 어러오누나

겨레를 통일어로 부르며  
판문점에 서있는 통일친필비어  
수령님 민족앞에 쌓으신 거룩한 은공  
그 업적 후손만대 길이 전하며  
오, 불멸의 기념비로 솟아 빛나라

허정숙선생은 한평생 가슴속에 묻어두고있던 간절한 소원을 해방된 조국땅에서야 풀게 되었다.

주체34(1945)년 12월초 어느날이었다.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해방과 함께 조국에 돌아온 허정숙선생은 오래오래 그리던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부르신다는 꿈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한없는 기쁨과 복받쳐오르는 흥분속에서 한동안 자신을 다잡지 못하고 서있던 그는 일군의 안내를 받아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향했다.

그가 올림은 가슴을 안고 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에 들어서자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따뜻이 맞아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지나온 생활경위를 다 들으시고 그간 고생이 많았다고, 이제는 조국에서 만났으니 그 이상 더 기쁜 일이 어찌 있는가고 교시하시었다.

수령님의 따뜻한 말씀에 감격한 선생은 오랜 세월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인사를 읊어내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장군님, 실한몸 새한 백두산에서 왜놈들을 죽이지드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라고 말씀올렸다.

추억의 갈피를 더듬으시듯 눈내리는 장박을 이속도록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는 광주학생사건이 일어났을 때 신문, 잡지를 보고 동무네 부녀자 한데렐에서 일제를 반대하여 잘 싸우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후 동무가 항일유격대에서 싸우기 위해서 서울을 떠나 중국 동북지방으로 들어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국관내로 들어간것도 다 알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연약한 너자의 몸으로 10년세월이나 총을 잡고 이국땅에서 항일을 한것은 정말 장한 일이라고 치하하시었다.

《장군님! 선생은 뜨거운 눈물을 떨구며 새창에 흐르셨다. (아,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를 찾아 내 얼마나 피와 눈물에 젖은 길을 헤매었던가. 이분이시야말로 조선사람모두가 운명을 선택할수 있는 겨레의 어머니이시구나. 참친만인민, 삼천리강토를 안고계시는 태양과도 같은 장군님의 품속에서 내 기꺼이 그 빛받로 빛나는 하나의 별이 되리라.)》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허정숙선생은 절세위인의

통일을 불러 공화국의 첫 여성상 (2)

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 있는 힘과 지혜와 열정을 강고히 다 바쳐나갔다.

1947년에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민족분열책동의 정체를 온 겨레, 온 세계에 알릴이 까마침은 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외과 정열을 원고지우에 쏟아 부었다.

이렇게 완성된 방송원고는 우리 공화국의 원칙적립장을 천명하고 미국의 민족분열책동의 죄행을 만천하에 발가 놓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마음속깊이 간직하던 그는 그후 4월남북련석회의의 나날에도 조직준비위원회 서기장사업을 하면서 남조선대표들을 애국애족의 길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선생은 련석회의에 참가하여 북반부에 들어온 김구, 김구식선생을 비롯한 우익정객들의 담화문을 신속히 보도하고 남조선대표들에게 새 민주조선건설에 펼쳐나선 공화국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기세와 행복한 생활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여러가지 참관

## 더 젊어질것 같다고 하시며

(통일애국시) 유현의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어느 하루도 심려하시지 않은 날이 없으시었다.

주체63(1974)년 여름의 어느날 새벽 4시경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푸름 푸름 밝아오는 동녘하늘을 바라보시다가 잠시 사색을 멈추시고 전화로 조국통일부에서 일하는 한 일군을 찾으시었다.

깊은 잠에 들었던 그 일군은 전화종소리에 깨어나 송수화기를 들었다. 순간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송수화기에서 어머니수령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울려나오는것이였다.

일군은 뜨거워오르는 마음을 견잡지 못하며 위대한 수령님께 인사의 말씀을 올리였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동무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동무도 피곤한 모양이라고, 조국통일이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교시하시었다.

피곤은 말하면 당과 국가사업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고 계시는 어머니수령님께서 몇백배 더 피곤하실것이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자신의 피곤은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 일군의 피

《어머니수령님! 아직도 주무시지 않으십니까?》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어찌지 잠이 오지 않아. ... 백두산에서 싸울 때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지금 나라를 통일시키지 못했으니 더 못 지고있소. 나도 통일된 다음 밀려든 잠을 한번 푹 자 보고싶소.》

조국을 통일시키지 못해 잠을 못 드신다는 그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일군의 심정은 한없이 괴로웠다.

그 일군이 자기의 안락까운 심정을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못한채 한해한해 보내는데는 몹시 가슴이 아프신듯 한동안 아무 말씀없이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다시 말씀을 올리시었다.

《우리는 할 일을 다 못했소. 우리는 꼭 우리 손으로 조국을 통일해야 하오. ... 통일만 되면 나는 10년은 더 젊어질것 같소.》

어느 한순간도 편히 쉬지 못하고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커다란 업적을 쌓으시고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또 이 한밤을 지새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그려보며 일군은 뜨거웠을 삼켰다.

본사기자 최광혁



허정숙선생

정견과 주의주장이 엇갈리는 복잡한 대오에서 온갖 잡사상의 세파에 부대끼면서도 애국애족의 리념을 지켜온 녀성의 마음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어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조대문화선진성으로까지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도량과 포용력은 이 세상 그 어느 령도자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크나큰것이었다. 정녕 이것은 우리 민족모두를 대단결의 넓은 품에 안아 새 조국건설과 조국통일의 한걸음 합류시켜주는 거대한 견인력이기도 하였다.

선생은 못 잊을 그날에 생의 마지막날까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훌륭한 일군이 되리라고 마음속깊이 다짐고 또 다짐였다. 그후 선생은 1957년 11월부터 사법상으로, 1959년 12월부터는 최고재판소장으로 사법하면서 잊지 못한 그날의 맹세를 지켜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심신을 다 바쳐 일하였다.

허정숙선생이 이렇듯 변함없는 참된 애국의 길을 걸을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는것이였다.

본사기자



# 풀먹는집짐승을 태대적으로 길러 젓제품생산을 늘여간다

— 강동군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을 찾아서 —



강동군 읍에서 남동쪽으로 80여리 떨어진 산골에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이 자리잡고있다. 지난날 구석지고 가난에 찌들려 사람 못살 산골로 버림받던 구빈리가 오늘엔 절세위인들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축산을 하여 잘사는 고장으로 몰라보게

변변되었다. 산골에 구름처럼 흐르는 염소떼, 젓소떼들이며 청년젓가공작업반치너들의 흥에 겨운 모습, 젓제품들을 싣고 줄지어 달리는 운반차들...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경쟁으로 변모된 구빈축산전문협동농

장의 이채로운 풍경이다. 위대한 후대사랑의 서사시가 또다시 새겨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소식을 크나큰 격정속에 접하고 풀먹는집짐승을 더 많이 길러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젓제품생산을 늘여갈 드높은 열의가 농장의 그 어디나 넘쳐흐르고있다.



## 구 빈 리 의 메 아 리

예로부터 굵이굵이 돌고돌아야만 힘들게 들어올수 있다고 하여 그 이름도 구빈리. 얼마전 이곳 축산전문협동농장을 찾으니 산중턱의 인공포탄에서 한무리의 염소와 젓소들이 풀을 뜯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집짐승기르기에 경험 많기로 손꼽힌다는 박봉철관리공이었다. 「우리 농장 집짐승방목에서의 특징은 무리규모가 크지 않은것입니다. 그것은 분산방목에 의한 무리담당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는 구빈리는 분산사육하기에 아주 편리하게 되어있다고, 풀판이 사방에 널려져있는데 맞게 한조당 30~50마리정도씩 분산사육하니 풀판리용에도 좋고 사양관리에도 편리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동행한 농장의 관리인군은 해마다 풀먹는집짐승의 마리수가 늘어나는데 맞게 농장에서 집짐승무리담당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있다고 설명해주었다. 개별적농장원들이나 작업

조단위로 일정한 마리수의 풀먹는집짐승들과 사료포진, 풀판을 맡겨주고 생산량에 따라 로력일을 평가하는 방법이 관리공들속에서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있다는것이였다. 박봉철관리공은 30마리의 염소를 기르고있다고, 처음 농장염소를 맡았을 때 잘못 관리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컸는데 차츰 경험이 생기고 사양관리기술을 열심히 배워 무리규모가 크지 않은것입니다. 그것은 분산방목에 의한 무리담당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는 구빈리는 분산사육하기에 아주 편리하게 되어있다고, 풀판이 사방에 널려져있는데 맞게 한조당 30~50마리정도씩 분산사육하니 풀판리용에도 좋고 사양관리에도 편리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동행한 농장의 관리인군은 해마다 풀먹는집짐승의 마리수가 늘어나는데 맞게 농장에서 집짐승무리담당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있다고 설명해주었다. 개별적농장원들이나 작업

조단위로 일정한 마리수의 풀먹는집짐승들과 사료포진, 풀판을 맡겨주고 생산량에 따라 로력일을 평가하는 방법이 관리공들속에서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있다는것이였다. 박봉철관리공은 30마리의 염소를 기르고있다고, 처음 농장염소를 맡았을 때 잘못 관리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컸는데 차츰 경험이 생기고 사양관리기술을 열심히 배워 무리규모가 크지 않은것입니다. 그것은 분산방목에 의한 무리담당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는 구빈리는 분산사육하기에 아주 편리하게 되어있다고, 풀판이 사방에 널려져있는데 맞게 한조당 30~50마리정도씩 분산사육하니 풀판리용에도 좋고 사양관리에도 편리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동행한 농장의 관리인군은 해마다 풀먹는집짐승의 마리수가 늘어나는데 맞게 농장에서 집짐승무리담당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있다고 설명해주었다. 개별적농장원들이나 작업

조단위로 일정한 마리수의 풀먹는집짐승들과 사료포진, 풀판을 맡겨주고 생산량에 따라 로력일을 평가하는 방법이 관리공들속에서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있다는것이였다. 박봉철관리공은 30마리의 염소를 기르고있다고, 처음 농장염소를 맡았을 때 잘못 관리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컸는데 차츰 경험이 생기고 사양관리기술을 열심히 배워 무리규모가 크지 않은것입니다. 그것은 분산방목에 의한 무리담당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는 구빈리는 분산사육하기에 아주 편리하게 되어있다고, 풀판이 사방에 널려져있는데 맞게 한조당 30~50마리정도씩 분산사육하니 풀판리용에도 좋고 사양관리에도 편리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동행한 농장의 관리인군은 해마다 풀먹는집짐승의 마리수가 늘어나는데 맞게 농장에서 집짐승무리담당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있다고 설명해주었다. 개별적농장원들이나 작업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꽃피워갈 드높은 열의를 우리는 젓소를 방목하는 리운섭관리공에게서도 읽을수 있었다. 인민들에게 유족한 생활을 안겨주시려고 온갖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간절한 념원을 고향땅에 꽃피우기 위해 성실히 일해왔을뿐인데 나라에서는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를 안겨주었다고 한다. 그 은혜에 보답할 마음으로 젓소관리에서 기본인 충분한 먹이원천을 마련하기 위해 돌밭을 개간하여 더 많은 풀판을 조성하려고 애쓰고있는 리운섭관리공이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성실한 맘을 바쳐 현실로 펼쳐여가는 긍지를 안고 관리공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산밭들에 메아리쳐갔다.

## 숭고한 육아정책을 받들어

—리명환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 관리위원장과 나눈 대담—

기자: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젓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소식을 받아안고 축산전문협동농장 일군으로서 심정이 남다르리라고 본다. 리명환: 정말 그렇다.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든든하게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종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하신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바로 오늘을 위하여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농장을 축산전문협동농장으로 꾸려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 촛구치는 격정을 누를길 없었다. 구빈리는 산골이지만 축산을 하여 잘사는 고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강냉이농사를 전문으로 하던 우리 농장을 축산전문협동농장으로 개편하도록 해주시고 우량종염소와 젓소를 비롯한

많은 풀먹는집짐승종자와 풀씨종자까지 보내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이 있어 염소와 젓소가 떼지어 흐르는 구빈리의 오늘이 펼쳐질수 있었다. 사실 우리는 지금처럼 어려운 때 농장에서 생산한 젓제품을 리안의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과 소학교 학생들에게 먹고있는것만도 크게 생각하고있었다. 그런데 이번 전원회의에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젓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이 당의 정책으로 선포되었으니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어버이사람에 목이 메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진정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시는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은 그 끝과 깊이를 헤아릴수 없는 위대한 어버이사람이다. 기자: 이번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있는지 알고 싶다. 리명환: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빛바치는 이번 전원회의 결정을 받아안고 농장적으로 여러차례의 협의회를 조직하고 현지 료해도 다시 구체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젓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농장의 실정에 맞게 젓이 많이 나오는 우량종염소 소원종이 퇴화되지 않게 하는 한편 병견질성이 강하고 번식률이 보다 좋은 새로운



우량종염소를 더 많이 육종하는데 선차적임을 넣고있다. 또한 염소와 젓소사양관리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면서 이미 마련되어있는 젓가공기지를 현대화하여 더 많은 젓과 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도 심화시키고 있다. 풀먹는집짐승마리당 먹이풀소비기준과 현재 정보당 먹이풀생산량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과학적인 계산과 구체적인 타산밑에 풀판면적을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염소와 젓소마리수를 결정적으로 늘리고 더 많은 젓가공품을 생산하려면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어떤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달라볼는가 하는데 있다. 우리는 후대들을 위하여 바치는 사랑이 어떤 클수록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더 많은 젓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이 땅 위에 어린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겠다.

산넘어 들넘어 구름넘어 방담계 울리는 영각소리 밤무공 우리들 부른다네 우리를 부르네 저 푸르른 들판으로 어서 어서 어서 가자 정든 곳으로... 구빈리의 산밭들에 울러가는 행복의 메아리, 그것은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든든하게 잘 키우는 중차대한 사업에 성실한 애국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다 바쳐갈 이곳 축산전문협동농장 일군들과 관리공들의 불타는 심장의 메아리였다. 본사기자 홍범식



## 맛 좋고 영양가 높을 여리 가치 젓가공품들

여기는 청년젓가공작업반, 이곳을 찾은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분석실이었다. 젓가공작업반에 실려온 젓은 먼저 이곳에서 엄격한 시료분석공정을 거친다고 한다. 분석실에서 합격된 젓은 철저한 멸균공정까지 거친 다음에야 가공에 들어가게 되어있었다. 농장에서는 자체로 연구개발한 효능높은 발효제를 리용하여 젓제품을 생산하고있었다. 천연동물유를 그대로 리용할수 있게 건설한 저장고에 매일같이 쌓이는 젓제품들은 맛과 향기가 고유하고 품질과 위생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것으로 하여 수요가 높다고 한다.

이러 젓가공원장에 들리니 도시의 식료공장을 방불케 하는 호림식생산공정에서 젓제품생산이 한창이고있었다. 우리와 만난 작업반장은 여기 설비들은 모두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시신 설비들이라고 하면서 어디서나 자기들이 생산한 젓제품의 덕을 토틈히 보고있다고 자랑을 담아 말하였다. 그는 「지난 시기에는 한두가지밖에 생산하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젓산유, 요구르트, 빠다, 치즈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젓가공품을 생산하고있다.」고 하면서 염소젓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김정실가공공도 만나보았다. 그는 이곳에서 오

래동안 젓제품을 생산해왔지만 지금처럼 일터에 대한 긍지를 부듯 느끼본적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국가의 혜택속에 마련된 젓제품이 공급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튼튼해지겠지요. 영양가 높은 젓제품들을 맛나게 먹으며 좋아할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보니 아무리 일해도 힘든줄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얼굴마다 행복의 웃음꽃을 피워올리는데 우리의 보람과 긍지가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어린이들의 친부모가 된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달을 영양가 높은 젓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 결의를 피력하였다.

이곳 젓가공작업반의 새로운 목표는 어린이들에게 공급할 젓제품생산을 훨씬 늘이는것이다. 목표는 높아도 이들은 무조건 넘쳐 수행할 결의로 충만되어있었다. 어린이들을 위하시는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그 사랑, 그 은정이 아이들에게 더 뜨겁게, 더 빨리 가달게 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확신할수 있었다. 따라서온 해살을 받아 더욱 밝고웃음을 이 나라 어린이들의 웃음, 그 웃음으로 하여 창창해갈 국가의 미래를. 본사기자 류현철

